

광주 6곳 공원, 민간 특례 개발

미집행 도시공원 제안 접수 공고
1단계 추진과정 문제점 보완
오는 9월 중 협상대상자 선정

광주시가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1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공고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대상 공원은 중앙·일곡·중의·송정·운

암산·신용(운암) 등 모두 6곳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넓은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사업을 추진한다. 공원 전체 면적은 711만8839㎡, 개발 대상인 비공원 시설 면적은 65만9901㎡, 공원 대상지 면적은 39만8412㎡이다. 나머지 606만526㎡는 원형지로 보존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전체 면적 중 아파트 등이 들어설 면적은 9.3%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녹지와 공원 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 업체와 기관은 제시한 비공원 시설과 공원시설 대상지 면적 기준 범위 안

에서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작성해야 한다.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은 지나친 고층화를 막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했다. 1단계에서 드러난 민간기업의 중복참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체별(계열사 포함) 1개 공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1일까지는 특례사업 의향서를, 9월 14일까지는 정식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오는 9월 중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신안 가거도서 피어난 '박달목서' 지난 1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발견된 희귀 나무 '박달목서'. 신안군은 “봄 섬식색분조사에 나선 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연구팀이 수령 150년 정도의 박달목서 1그루와 어린 유목 10여 그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뉴욕 퀸즈칼리지서 '외양간' 울려 퍼지다

5·18 세월호 기념식 추모곡

지난 12일 오후 6시(현지 시간) 미국 뉴욕 퀸즈칼리지에서 개최된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의 추모곡으로 진도군청 이종호씨가 작사·제작한 노래 '외양간'이 울려 퍼졌다. 휴스턴대 소프라노 나성신 교수와 소프라노 오수현씨가 이날 외양간 영상과 반주에 맞춰 직접 노래를 선보였다. 외양간은 이씨가 지난 2010년 직접 작사한 사부곡(思父曲)으로 우리나라 옛 속담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의 머릿말 잇기 속담시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음에 늘 대비하고 배려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특히 후렴구로 쓰인 외양간은 대한민국 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인 진도군 상장례 문화중 하나인 진도 만가의 구슬픈 “애~” 소리를 가미해 설움이 극에 다다를 듯하다. 미주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대표 강준화)측은 과거 이씨가 페이스북 계정



사부곡(思父曲) 외양간을 작사한 진도군청 이종호씨

등에 올린 외양간 노래와 영상을 보고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잘 표현한 듯 해 행사의 추모곡으로 사용하고 싶다”면서 지난 4월 말 이씨에게 연락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미주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북미 민주포럼·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사람사는세상 워싱턴·뉴욕한국문화재단·보스턴민주연합·민족사상연구회·416해외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장흥 작약, 관상·약재로 '고소득' 효자

장흥 약용작물 재배단지 작약 만발
단위면적 당 수익 벼농사 대비 5배

장흥군 용산면 송전리 약용작물 재배 단지에 작약꽃이 만발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꽃이 아름다워 함박꽃으로도 불리는 작약은 관상용으로도 재배되며, 뿌리는 진통, 빈혈, 타박상 등의 약재로 쓰인다. 장흥군에서는 2015년부터 지리적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농기계 운용이 어려운 논밭을 대상으로 약용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현재 장흥군에서는 50여 농가가 작약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약 40ha에 이른다. 작약은 단위면적 당 수익이 벼농사 대비 5배에 이르는 고소득 작물



용산 송전 작약밭.

로 3년에서 4년을 재배하면 출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작약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관 작물로도 활용해 농촌체험관광 등 6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alice1008@

전남도지사배 해외동호인 골프대회 17일 개최

전남도는 중국과 일본 골프 동호인 95명이 참가하는 제5회 전남도지사배 해외동호인 골프대회가 17일 화순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지사배 해외동호인 골프대회는 남도 골프 관광 인프라를 홍보해 해외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됐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중국 노선 재개와 중국인 관광객 단체관광이 허용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연계해 중국과 일본지사를 통해 빠른 홍보와 모집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에 참여한 골프동호인은 3박 4일과 4박 5일의 골프 관광상품으로 전남을 방문한다.



광주 광산구 어등산골프장 전경 /뉴스1

이는 두 번 이상의 자비 라운딩과 관광지 방문 등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관광형 스포츠 상품이다. 특히 이번 골프대회에선 전남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조선족 기업가 골프협회 회원 50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또 중국과 일본의 대형 여행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통해 전남 골프장의 장점을 소개하고, 체류 기간 중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청정 전남지역에는 37개의 경관 좋은 산지형 골프장, 바다와 어우러진 해안형 골프장 등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있다. 온난한 기후로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하다. 맛있는 음식과 저렴한 그린피 등 골프 관광지로써 경쟁력이 높아 매년 3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다. 방옥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골프장을 널리 알려 많은 외국 골프 관광객이 찾게 되길 기대한다”며 “외국 관광객들이 전남의 골프장에서 편안하게 라운딩을 즐기고 주변 관광지도 둘러보도록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옥스팜 트레일워커.

구례군 '옥스팜 트레일워커' 패밀리 프로그램 성료

구례군은 지난 1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세계적인 기부 프로젝트인 '옥스팜 트레일워커'의 10km 패밀리 프로그램이 3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코스는 구례군의 주요 관광지로 알려진 '지리산호수공원'과 지리산호수공원을 상징하는 경관다리를 거쳐 지리산권의 100여 종의 야생화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지리산공원의 '야생화 테마랜드'를 돌아 출발지인 구례자연드림파크로 돌아오는 코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km 코스이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gunguck@

1시간 30분 만에 완주에 성공한 서기동 구례군수는 “군민과 함께 뜻깊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1981년 홍콩에서 시작된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38시간 동안 100km를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챌린지로, 지난해에 이어 지난 12일 전남 구례에서 두 번째 열렸으며, 옥스팜 트레일워커 참가비와 팀별 사전 기부 펀딩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은 100%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구호 자금으로 쓰인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gunguck@

구례군 전 국민 지진 대피훈련

구례군은 오는 16일 제407차 민방위의 날을 맞이하여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국민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포항 지진이

후 높아진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반영하여 전 국민 참여식 훈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경보 사이렌이 2시 정각에 울리면 건물 내 주민은 물건을 떨어뜨려 몸을 다칠 수 있으니 책상과 탁자 아래에 2분간 몸을 피한 후 유도 요원 안내에 따라 계단 등 비상구를 이용하여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야 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구례군청소년수련원에서는 순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재난관리자원 응원 협약민간기업 등 11개 민간단체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 대피, 화재진압, 응급복구, 구호 등 지진 복합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